

# “나에게 시는 사랑의 통로이자 세상의 창”

## 장권호 교사 ‘사람의 숲에서 만난 시’ 펴내

“나에게 시는 사람을 사랑하는 통로였고 세상과 관계를 이어주는 창이었다. 나는 누구이며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치열한 물음이기도 했다.”

결에 시가 있어 삶이 남부러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 그에게 시는 어려웠던 한 시대를 버티게 해준 힘이 되었다.

누구나 ‘18번’이라고 부르는 애장곡이 한쪽쯤은 있듯이, 사람들은 좋아하는 애송시 한편쯤 가슴에 품고 있기 마련이다. 시란 그렇듯 누군가에게는 ‘통로’고 ‘관계’이며 ‘창’인 것이다.

광주 운남고에 재직 중인 장권호(60) 교사는 “시는 내태한 나에게 늘 삶의 각성을 요구했고 위기의 순간마다 삶의 불빛이 되어 주었다”고 말한다. 이번에 펴낸 ‘사람의 숲에서 만난 시’(심미안)는 사람과 세상, 삶의 방향을 알려준 80편의 시에 대한 단상과 해설을 묶은 시선집이다.

그가 이번에 시선집을 펴내게 된 것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광주교사신문’에 ‘시가 있는 오솔길’이라는 문패를 달고 시 해설을 연재했다. 그 가운데 11년간(1998년~2009년) 연재한 작품들 중 일부를 모아 단행본으로 엮었다.

“돌이켜 보면 교직 36년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다”고 말하는 그는 “교사로

### 사람과 세상, 삶의 방향 알려준

### 80여편의 시 단상·해설 묶어

### 사막같은 세상에 한바가지 물

가파른 시대를 살아오면서 사람의 온기와 서늘한 마음밭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시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강조한다.

장 교사는 전북 남원 출생으로 전북대 국문과를 졸업했으며 1981년 순천상고를 시작으로 교직에 입문했다. 시인이 되고 싶었지만 못다 이룬 꿈을 시 해설을 통해 간접 체험을 한다.

시선집은 모두 6부로 구성돼 있다. ‘편지’, ‘돌아오는 길’, ‘삶의 어느 특별한 순간’, ‘겨울나무에서 봄나무에게’, ‘오래 흔들렸으므로’, ‘옛날의 그 집’ 등으로 엮어진 시편들은 우리가 익히 아는 시인들의 작품이다. 김남조, 천양희, 마중기, 박남준, 김남주, 고정희, 안도현, 신경림, 정현중, 김용택, 김사인, 황지우, 황동규, 이성부, 정희성, 문정희, 박경리 등 문인들의 시는 저마다 빛을 발한다.

1부 ‘편지’로 집약되는 시들은 사랑이라는 전형에 빠진 이들의 ‘연서’다. 문정희 ‘겨울사랑’을 읽어내는 그의 감성은 따스



하면서 직선적이다.

“눈송이처럼 나에게 가고 싶다/ 머뭇거리지 말고/ 서성대지 말고/ 숨기지 말고/ 그냥 네 하얀 생애 속에 뛰어들어/ 따스한 겨울이 되고 싶다/ 천년 백설이 되고 싶다.” (문정희 ‘겨울사랑’)

그는 “사랑하는 사람의 생애 속으로 뛰어들어 천년 백설이 되고 싶어 하는 세상의 모든 연인들에게 전하는 긴급 메시지”라고 풀이하면서 “머뭇거리지 말고 서성대지 말고 숨기지 말고, 지금 사랑하라. 세상의 모든 사랑은 무죄다”라고 말한다.

젊은 시절의 뜨거운 사랑이 그에게도 있었을 듯하다. “젊음의 열정으로 시를 사랑했고 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몸부림쳤다”는 그에게도 피하고 싶은 굴절이 있었다. 1989년 광주 금고에서 전교조 활동을 하며 해직을 당한 것이다.

“해직을 하고 한동안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다. 이후에는 임시 학

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1994년 다행히 복직이 돼 학교 현장으로 돌아왔지만, 시에 대한 열정만큼은 그대로였다. 교사신문 기자로 활동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좋은 시를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다.

제일 애송하는 시를 물었다니 “정희성 시인의 ‘첫 고백’과 박경리 작가의 ‘옛날의 그집’”이라고 말한다. 열망으로 가득했던 시절을 지나 성찰과 관조를 견지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라다. “--모진 세월 가고/ 아아, 편안하다 늙어서 이리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는 박경리의 ‘옛날의 그집’이 나이 들어갈수록 새록새록 다가온다는 것이다.

시선집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서’도 수록돼 있다. 장 교사는 그것을 한편의 시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 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각각의 시편에는 산정중학교 미술 교사인 오서영 씨가 그린 그림들이 실려 있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룬다.

추천사를 쓴 김준태 시인은 “‘사람의 숲에서 만난 시’는 그야말로 사랑의 시집이다. 마음들이 사막화 되어간다는 세상에서 시는 아직도 한바가지의 물이기를 선생은 갈망한다”고 의미를 평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박진현의 문화카데

지난 2012년 여름, 이종덕 총무 아트홀 대표(현 단국대 문화예술대학원장)의 집무실에 들어서자 흑백 사진이 눈에 띄었다. 책상 뒤 벽면에 걸린 발 사진이었다. 아름다운 풍경이나 꽃 그림이 걸려 있는 CEO 방은 많이 봤지만 사람의 발 사진을 ‘모셔둔’ 경우는 처음이어서 낯설었다. 더욱이 여기저기 피멍으로 얼룩져 있고 굳은살이 박여 있는 ‘못난이’ 발이었다.

사진의 주인공은 최근 은퇴 공연을 가진 발레리나 김수진(49)씨. 지난 2009년 국제 무용제를 준비하면서 처음 강씨를 만났다는 이 대표는 혹독한 연습으로 만신창이가 된

원한 이날 음악회에서 그는 이제 막 데뷔 무대에 오르는 신진 예술가처럼 공연 내내 열정적인 자세로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개인적으로 빼어난 연주도 연주이지만 그의 진지한 모습에 더 감명을 받았다.

이처럼 예술가들의 치열한 삶과 예술적 성취는 많은 사람에게 깊은 울림을 남긴다. 이 대표가 강씨의 사진을 집무실에 걸어둔 것도, 정부와 민간 문화재단이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이 같은 예술의 공공성 때문이다.

요즘 국내 문화예술계가 때마침 ‘블랙리스트’ 공방으로 어수선하다. 현 정부가 일부 예술인들의 이

## 문화계 블랙리스트 ‘유감’

그녀의 발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무대 위의 우아한 자세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목을 연상케 했기 때문이다. 순간 마음이 몽클해진 이 대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며 찬사를 보냈고 강씨는 감사의 표시로 발 사진을 선물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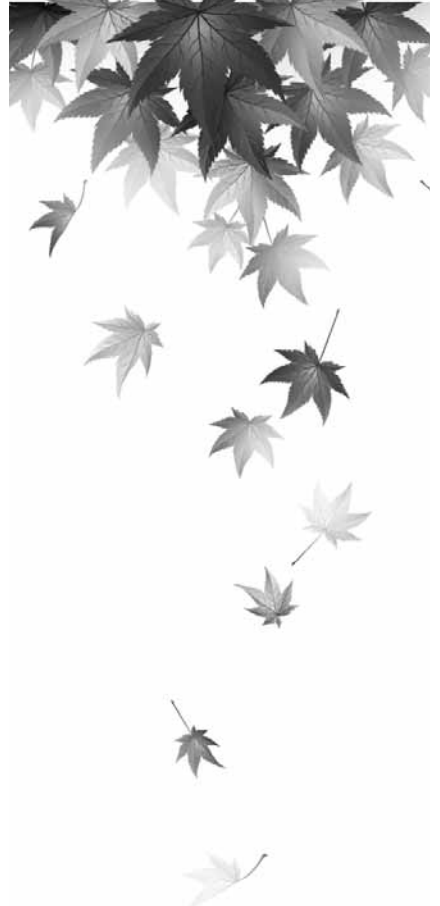
최근 SNS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그 남자의 손’이라는 제목의 사진 장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얼마 전 급성심근경색으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31)의 ‘못생긴 손’이었다. “아는 사람이 안다. 그가 무서울 정도로 연습벌레라는 것을, 손톱이 남아지 않도록, 손가락 길이가 닳도록 그는 바쁜 스케줄에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글과 함께 지인이 페이스 북에 올린 사진은 네티즌들의 심금을 울렸다.

기자 역시 2년 전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 아트홀에서 연주하던 그의 무대가 떠올라 가슴이 먹먹했다. 금호 아시아나 문화재단이 후

를이 적힌 리스트를 작성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기금 대상에서 (이들을) 제외하라는 공문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원불가’ 대상 947명 가운데에는 세월호 관련 선언이나 문재인·박원순 후보지지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대거 포함됐다.

이에 대해 조운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감에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이 주장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참여정부 시절, 민예총 계열인사들이 국립현대미술관 등 주요 문화예술단체 수장을 ‘접수’ 했는가 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념과 코드가 맞는 예술인들이 ‘빛을 본’ 과거가 있기 때문이다. 진위야 어떻든 도전과 개성을 추구하는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데 정치가 개입해선 안 될 것이다. 문화용성을 국정 기조로 내세운 정부라면 더더욱 그렇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나뭇잎 사이로 인문학이 흐르는 가을

양림동 24~28일  
호랑가시나무 예술아카데미  
문화재단 11월 4일부터  
호남, 인문에 말을 걸다 3

가을이 무르익어 가는 10월, 광주에서 인문학 강의가 잇따라 열린다.

문화 그룹 ‘순수’가 음악 공연과 교양 강좌가 어우러진 ‘호랑가시나무 예술아카데미’를 연다. 24~28일 오후 6시30분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아트플러군’.

이번 프로그램은 ‘2016 지역특화문화거점지원사업’의 하나다. 24일에는 전찬일 영화평론가가 강사로 나서 ‘공론장으로서의 영화-천만영화의 시대적 인문사회적 함의를 중심으로’에 대해 들려줄 예정이다. 이어 25일 김남수 미술평론가는 ‘미술은 동굴의 눈에서 시작되었다’를, 27



임진모 음악평론가

김명관 교수

일 홍용희 문학평론가는 ‘김현승, 고독과 신성의 언어’에 대해 이야기한다. 28일 임진모 음악평론가의 ‘대중음악, 흑백 갈등과 결합의 사회사’를 끝으로 프로그램 마무리한다. 매 강의 이후 광주 공연팀이 출연해 재즈, 힙합, 대중가요 등을 들려준다. 참가비 무료. 문의 062-651-0972.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11월4일부터 29일까지 매주 화·금요일 오후 7시 광주

문화재단 4층 다목적홀에서 ‘호남, 인문에 말을 걸다’를 주제로 시민인문강좌를 개강한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시민강좌는 ‘호남기록문화유산 발굴·집대성·콘텐츠화사업’의 하나로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인문학과 접목한 호남 문화유산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11월4일 ‘한국사에서 전라도 바로보기’ (조범중 우석대 역사교육과 교수)를 시작으로 ‘미술로 보는 한중일의 문화지형’(지상현 한성대 예술대학 교수), ‘조선의 만든 힘, 책과 책벌레들’(강명관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 등이 이어진다. 또 2차례에 걸쳐 호남 서원·향교에서 순회강좌를 열어 기록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일 예정이다.

수강생은 선착순(100명)으로 모집하며 수강료는 무료다. 희망자는 26일까지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234-2727.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호남시조시인협회 ‘제 11회 시조 시서화전’

### 23일까지 남광주역 전시장

47년 전통의 호남시조시인협회가 ‘제 11회 시조 시서화전’을 개최해 눈길을 끈다.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 후원으로 남광주역 전시장에서 오는 23일까지 전시되고 있는 이번 시서화전은 ‘무등산의 메아리’라는 주제로 무등산과 광주오월을 소재로 한 다수

의 작품들이 출품됐다.

지난 6일 남광주역 전시장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석소폰 연주, 축시낭송, 자작시조 낭송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김철환 회장은 “회원들이 앞으로도 더욱 정진해 명품 시서화전을 지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술향기맑은터.com

NAVER 술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술향기 맑은터는 충청남도 정황동 18번지 108㎡ 면적에 있습니다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평균작음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동,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술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